

제343회 국회
(임시회)

국회 본회의회록

제5호

국회사무처

2016년6월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상정된 안건

- | | |
|------------------------------|---|
|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 1 |
|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8 |

(10시01분 개의)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원회 간사에 유의동 의원, 전해철 의원, 김관영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에 이현재 의원, 박광온 의원, 김성식 의원, 국방위원회 간사에 경대수 의원, 이철희 의원, 김중로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에 김태흠 의원, 이개호 의원, 황주홍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에 하태경 의원, 한정애 의원, 김삼화 의원, 정보위원회 간사에 이완영 의원, 김병기 의원, 이태규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주광덕 의원 대표발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섭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노회찬 의원 등 24인으로부터 유엔 인권이사회에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10시03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의당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안철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철수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20대 총선에서 1번이 아닌 2번이 아닌 3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부족하지만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의 세 번째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변화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부족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국회를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바꾸기에는 저희의 힘이 아직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심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뜻은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심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서로 반대만 하는 정치의 판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투표용지는 비록 작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큰 파도를 만들었고 거대한 민심의 해일이 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만들어 주신 제3당 정치혁명은 과거에 얹매여 싸움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베티기만 하면 잘하면 1등, 못해도 2등 하던 낡은 양당 독점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민심은 또한 명령했습니다. 민생을 쟁기라는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무를 끓고 국민께 도와 달라고 손 내미는 정당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께 도와 드리겠다고 먼저 손 내미는 정당이 되라는 것입니다.

민심은 아울러 미래를 대비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동차와 핸드폰으로 먹고살 수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에 정치는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쟁에서 뒤쳐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혁명적 대전환기입니다.

저희는 비록 38석 소수정당이지만 국민 편입니다. 국민 편에 서서 국회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서울 신중초등학교 윤채영 어린이, 올해 4학년, 2006년생입니다. 윤 양의 친구는 전국적으로 44만 8000명이 있습니다. 윤 양의 어머니는 1976년 생, 어머니의 동년배는 79만 6000명입니다. 딸 세대가 엄마 세대의 절반입니다.

앞으로 30년 뒤에 윤 양과 친구들은 자신들보다 두 배나 많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 어린 친구들에게 그 짐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합니다. 이웃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거의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년 이상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2030년부터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2060년까지 이어져서 65세 이상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향후 45년간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상수입니다.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인구구조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구절벽이라는 내부의 심각한 문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고가 동시에 닥치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대국, 인공장기를 복제해 내는 3D 프린터, 연일 인류의 삶을 바꾸고 산업의 근본을 흔들어 놓을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의 다른 이름은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드론과 결합해서 날아다니는 컴퓨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로봇이 아마존의 대형 서고 정리하고, 로봇이 스시를 만들어 서비스하는 시대입니다. 로봇의 부상은 일자리, 노동에 대한 개념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독일에 갔을 때 ‘인더스트리 4.0’의 대표적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은 로봇이고 부품은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무인자동차가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제조업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 양과 친구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내일입니다. 지금의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합니까? 정부와 국회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답을 피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죄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 혁명 추진을 위해서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에 거듭 제안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 변화를 뒤쫓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에 둔감한 사람입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변화를 준비하는 정치의

상정입니다.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텔은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장입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문과 노동 부문에서는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해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는 공간입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아울러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미래 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 가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일자리를 논의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위가 필요한 이유는 일하는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회가 단순했을 때 한 부처나 한 분야의 전문가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십시오. 환경부의 화학물질·살생물질 관리시스템과 법·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규제가 미비한 것은 왜입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는 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문제, 경유의 배기ガ스 문제가 있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관리 문제도 있습니다. 각각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관련된 일입니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도 당장 대책 세워야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할 일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처나 특정 분야 전문가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처 중심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에 두는 시각과 접근 방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처의 일인지를 따져서 해당 부

처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와 연관된 부처와 전문가들을 차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미래 일자리는 교육부 혹은 산업 부문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회가 총체적으로 접근할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 일자리는 어느 상임위에 맡긴 후에 대책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일자리를 국가적 화두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 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집중 논의해야 합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당과 2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당의 대표 모두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한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공정한 성장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방법과 시각은 달라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을 1만 원이라고 할 때 상위 30%가 7340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위 30%의 뜻은 250원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의 절벽입니다.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격차도 엄청납니다. 홍만표 게이트 등 최근 법조비리를 보면 전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법조인은 전화 두어 통으로 수억 원을 우습게 버는 데 비해서 많은 국민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배운 법조계부터 전관이라는 특수계급은 이미 오래 전에 창설돼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법조 교육 언론 체육, 심지어 문화예술계에도 기득권의 뿌리는 단단합니다. 관피아에서 메피아까지 기득권 체제의 유착관계는

강력합니다.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입니다. ‘기득권’이라고 쓰고 ‘격차’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갑이 읊에 대한, 읊이 또 다른 읊에 대한 그리고 또 다른 읊에 대한 기득권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모두 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해 준 권한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재벌 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 경고 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경고등이 지금은 구의 역에 붙은 포스트잇이지만 어느 날 임계점에 달하면 그 경고는 무서운 함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 유럽의 기성체제를 뒤흔든 1789년 프랑스대 혁명은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스티유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프랑스 구체제 앙시앵례짐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법정의,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습니다.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박수)

국가 경제의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제성장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목적 잃은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성장 결과인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 소득으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줄어든 가계소득 비중이 기업소득 증가로 이전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기업의 내부유보율은 매년 증가했지만 유보된 이익이 미래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대재생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불평등한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됐고 불균형한 기업 생태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노동 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등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들께 제안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담보하자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여도 야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격차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께서 앞장서서 전체 국회 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0대 국회 4년 동안에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해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웁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예측 가능한 정치일 것입니다.

(박수)

우리 20대 의원들은 이미 선거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공약하셨습니다. 국민의당은 ‘가진 것 없이 태어나도 세상은 살 만하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통분모, 충분합니다. 문제는 실천의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훌륭한 성과를 거둬서 퇴임사에 많은 박수가 쏟아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관계입니다.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재 국면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습니다. 결국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을 언제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처럼 강대국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 간의 가치관 차이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오랜 기간 살더라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제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 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각 분야에 대해서 북한을 연구하고 제재 국면 이후에 교류가 시작될 때 적극적인 경제 교류, 민간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서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둘째,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힘들어하면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며 공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무엇도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서만 최근 5년 사이에 25~29세 청년 일자리가 66만 개에서 55만 개로 11만 개나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미래일자리특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구조조정을 넘어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급한 불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또 막대한 세금 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명확한 책임 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동시에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성공의 요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겁니다.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요람’입니다.

전체 창업 기업 중에서 극히 일부만 성공하는 것이 벤처의 세계입니다. 일부 성공 사례만 모아서 무리하게 공통점 추출해 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핵심은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재도전할 때 그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그 전의 모든 실패를 갚고도 남을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새롭고 창의적인, 도전적이며 모험적인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을 먹여 살렸던 휴대폰, 자동차 등의 산업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작년 가을에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쓴 ‘축적의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점으로 개념설계 역량 부족을 꼽았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새로운 개념설계인데 우리는 선진국의 것을 가져와서 빠르게 추격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진국처럼 긴 시간 기다리면서 경험을 축적할 시간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또 중국이라는 더 무서운 추격자가 턱밑에, 어쩌면 이미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새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개념설계를 통해서 선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설계 역량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축적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창조적 역량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예산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사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해서 다양한 시도를 가능케 하는 등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입니다.

우리 가계부채, 이미 지난해 말로 1200조를 넘었습니다. GDP의 8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DP의 79%인 미국, 66%인 일본보다 훨씬 높고, 전 세계 주요 18개 신흥국 중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지나치게 몰려들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의 촉매제가 돼서 훗날 커다란 부작용을 낳아서 우리 후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 DTI 강화를 포함해서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합니다.

다섯째, 영남권 신공항 관련입니다.

PK와 TK, 두 지역을 들끓게 만든 신공항 선정 경쟁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09년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두 지역 간 오랜 분열과 갈등만 초래했습니다.

철저하게 국의 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을 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선거공약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필요합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가 할 많은 일들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정부 등에 자료

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법적 권한 등을 지켜 가야 하겠지만 국회의원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실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복지를 늘려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자칫하면 이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집단 간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 일이 됐습니다. 국회가 아니면 이 어려운 일을 맡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 수준과 조세부담 수준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일 것입니다.

(박수)

셋째, 우리 사회를 불안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먹고, 쓰고, 이동하는 수단들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상황,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합니다. 가족 건강 위해 내 손으로 산 물건이 어린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참사,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안전을 위한 투자에 자원 우선 배분하고, 안전사회의 적들에 대한 전면전 선포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 미세먼지 대책안 등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넷째, 공정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공정 경쟁구조를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살 길이 열립니다.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

놓여져야 합니다.

미국은 100대 부자 중 70명이 자수성가 그리고 30명이 상속부자입니다. 다른 나라들 그리고 세계 평균도 대개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0명 중 75명 전후가 상속부자, 25명 전후가 자수성가입니다. 계층 간 이동이 크게 줄어드는 닫힌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20대 국회의 책무일 겁니다.

(박수)

이제는 승계경제가 아니라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지금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회와 싸워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교육은 계층이동의 열린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육이 계층이동을 막는 거대한 담벼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담벼락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 혁신 이루어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장년층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게 투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979년 중국의 지도자鄧小平은 중국을 찾은 일본 수상 오하라에게 40년 뒤 중국은 생활수준이 중간단계인 소강사회, 70년 뒤인 2050년에는 유교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수십 년 후의 큰 그림을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몇 명의 소수 지도부가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鄧小平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10년, 20년, 아니 50년 뒤의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이 말 국가경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국가경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로 말입니다.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가 통제 못 하는 외부 변수에 의해서 일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이끌어 가는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국회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의원이 바뀌고 주도정당이 바뀌더라도 이어져야 합니다.鄧小平이 중국의 30년 뒤, 50년 뒤를 그린 것처럼 우리 국회는 미래 한국의 모습 그려 내야 합니다.

(박수)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살림살이도 꽉꽉하고 흉악한 범죄 끊이질 않습니다.

나라경제도 어려운데 조만간 대량실업이 벌어진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힘들게 공부시키지만 청년실업 때문에 한숨만 쌓여 갑니다.

나라 안도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한데 영국의 브렉시트 움직임 예사롭지 않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영향도 걱정되는데 우리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나라 밖 일들을 제대로 챙기기는 하는지 노심초사하십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보다 먼저 걱정하고 국민보다 나중에 웃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껏 그러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달라지겠습니다. 걱정은 국민들보다 먼저하고 기쁨은 제일 나중에 누리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에 전념하겠습니다.

(박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맹자의 가르침 중에 ‘항산(恒產)이 있는 자가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과 생업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

하다는 뜻입니다. 요즘 의미로 일정한 소득과 일자리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항산과 항심을 책임져야 하고 정치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너무나 상식적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청년은 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 노후가 돼도 겸소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 어느 날 배 타고 가다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화장실에 갔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비정규직이라도 안전과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로봇의 시대에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출산과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 전관예우로 사법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국가가 유리지갑만 털어가지 않는다는 조세 형평에 대한 믿음, 기회는 공평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드려야 할 당연한 믿음과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이런 믿음과 기대를 키우기 위해서 저와 국민의당은 미력하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꿈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크게 키워 가는 일에 우리 함께합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세균 안철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정세균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 의원(293인)

장길부	장병원	장석진	장석호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석창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립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김종로	김진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화상	민경우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배덕광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영교	서청원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민석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여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재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김세연	김순례	김승희	김영진
유민봉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정우
유은혜	유의동	유재중	유관석	김정재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김종인	김종태	김종회	김종훈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김종로	김진표	김철민	김태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권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김현미	노옹래	노회찬	도종환
이상돈	이석현	이양수	이언주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경욱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박덕흠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이정현	이종결	이종구	이종명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박주선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박덕광
이춘석	이태규	이학재	이현승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이현재	이혜훈	이훈	인재근	서형수	설훈	소병훈	손금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손혜원	송기석	송기현	송석준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송영길	송옥주	송희경	송신경민
전현희	전혜숙	전희경	정갑윤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신창현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염동열	오세정	오영훈	우상호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위성곤	유기준	유민봉	유성엽
조응천	조정식	조훈현	주광덕	유승민	유은혜	유의동	유관석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세)	윤영일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동섭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양수
추미애	추혜선	표창원	하태경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결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진복
황희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개의 시 재석 의원(239인)

강병원	강석진	강효상	강훈식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권미혁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김관영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정세균	정양석	정우택	정운천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김석기	김선동	김성수	김성식	조웅천	조훈현	주광덕	주승용
김성원	김성찬	김성태	金成泰	지상욱	진영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 교 일	최 도 자
최 운 열	최 인 호	추 경 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주 홍	황 희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석	윤 영 일	윤 종 오
윤 종 필	윤 한 홍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동 섭	이 만 희

○산회 시 재석 의원(278인)

강 길 부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이 언 주	이 완 영	이 용 득	이 용 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이 용 호	이 우 현	이 원 육	이 은 권
곽 대 훈	곽 상 도	권 미 혁	권 석 창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 재 정
권 성 동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이 정 미	이 정 현	이 종 구	이 종 명
기 동 민	김 경 수	김 경 진	김 경 협	이 종 배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김 관 영	김 광 릴	김 광 수	김 규 환	이 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춘 석
김 기 선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이 태 규	이 학 재	이 현 승	이 현 재
김 무 성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이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종 성
김 병 육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훈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김 상 희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김 성 식	김 성 원	김 성 찬	김 성 태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 성 호
金 成 泰	김 세 연	김 순 례	김 승 희	정 세 균	정 양 석	정 용 기	정 우 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정 운 천	정 유 섭	정 인 화	정 재 호
김 영 호	김 정 우	김 정 재	김 종 대	정 종 섭	정 진 석	정 춘 숙	정 태 옥
김 종 민	김 종 석	김 종 인	김 종 태	제 윤 경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김 종 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조 원 진	조 응 천	조 정 식	조 훈 현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육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진 선 미	진 영	채 이 배	천 정 배
김 현 미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 교 일	최 도 자
노 회 찬	도 종 환	문 미 옥	문 진 국	최 명 길	최 연 혜	최 운 열	최 인 호
문 회 상	민 경 옥	민 병 두	민 홍 철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출	하 태 경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박 덕 흄	박 맹 우	박 범 계	박 병 석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박 성 중	박 순 자	박 완 수	박 완 주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박 용 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정	황 주 홍	황 희		

○청가 의원(3인)

장 창 일	이 상 민	이 학 영
-------	-------	-------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우 장	운 대	근 섭
의 사 국 장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황 교	안 호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유 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 준	식
외 교 부 장 관	윤 이	
통 일 부 장 관	홍 윤	용
법 무 부 장 관	김 현	표
국 방 부 장 관	한 민	웅
행 정 자 치 부 장 관	홍 윤	구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 종	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동	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 형	환
보건복지부장관	정 진	엽
환경부장관	윤 성	규
고용노동부장관	이 기	권
여성가족부장관	장 은	희
국토교통부장관	장 호	인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석
국민안전처장관	박 인	용

○출석 정부위원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 재 유

【보고사항】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정무	유의동	새누리당	2016. 6. 21.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국민의당	
기획재정	이현재	새누리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성식	국민의당	
국방	경대수	새누리당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김중로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김태흠	새누리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황주홍	국민의당	
환경노동	하태경	새누리당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김삼화	국민의당	
정보	이완영	새누리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이태규	국민의당	

○의안 제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1. 정부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홍일표 · 이현재 · 이종배 · 이정현 · 안창수 · 경대수 · 이완영 · 김선동 · 정유섭 · 여상규 · 하태경 의원 발의)

이상 2건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홍일표 · 이현재 · 황영철 · 안상수 · 오신환 · 박덕흠 · 송기석 · 정양석 · 하태경 ·

윤재옥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주광덕 · 박덕흠 · 경대수 · 박성중 · 윤재옥 · 정운천 · 정태옥 · 곽대훈 · 김종태 · 황영철 의원 발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함진규 · 강석호 · 김규환 · 김기선 · 박덕흠 · 염동열 · 이명수 · 이완영 · 이우현 · 이정현 의원 발의)

이상 3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이언주 · 이원우 · 황희 · 백재현 · 정성호 · 민홍철 · 김영춘 · 김태년 · 원혜영 · 이훈 · 김현권 의원 발의)

정무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1. 정부 제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김선동 · 이종명 · 김용태 · 한선교 · 김규환 · 강석진 · 김순례 · 조훈현 · 전희경 · 홍철호 · 신보라 · 이정현 · 이은재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1. 정부 제출)

초 ·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박홍근 · 이찬열 · 위성곤 · 박주선 · 윤관석 · 김해영 · 도종환 · 이인영 · 김경수 · 이용득 의원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박홍근 · 이찬열 · 위성곤 · 김해영 · 박주선 · 도종환 · 이인영 · 김경수 · 이용득 · 윤관석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이동섭 · 박주선 · 안규백 · 정동영 · 김광수 · 이용호 · 송기석 · 김삼화 · 김철민 · 유성엽 의원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이동섭 · 김삼화 · 황주홍 · 안규백 ·

송기석 · 김광수 · 김철민 · 유성엽 · 김종회 ·
김동철 의원 발의)
이상 6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하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권고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2016. 6. 21. 노희찬 · 강병원 · 권칠승 · 김경진 ·
김종대 · 김종훈 · 김영주 · 김영호 · 서영교 ·
신경민 · 신창현 · 심상정 · 우원식 · 윤관석 ·
윤소하 · 윤종오 · 윤후덕 · 이정미 · 이종걸 ·
이찬열 · 정성호 · 진선미 · 최인호 · 추혜선 의원
발의)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명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1. 이종명 · 김세연 · 김성찬 · 김선동 ·
장석춘 · 김성태 · 김용태 · 권성동 · 안규백 ·
황영철 · 신보라 · 김태홍 · 경대수 · 김규환 ·
원유철 · 이철규 · 김학용 의원 발의)

국방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1. 정부 제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과 탈원전 에너지 정책 촉구 결의안

(2016. 6. 21. 김영춘 · 강창일 · 강훈식 · 고용진 ·
권미혁 · 권칠승 · 기동민 · 김경수 · 김경진 ·
김경협 · 김관영 · 김두관 · 김민기 · 김병관 ·
김병기 · 김병욱 · 김부겸 · 김상희 · 김영주 ·
김영호 · 김정우 · 김종대 · 김종회 · 김철민 ·
김태년 · 김한정 · 김해영 · 김현권 · 김현미 ·
남인순 · 노희찬 · 도종환 · 문미옥 · 민홍철 ·
박경미 · 박남춘 · 박범계 · 박선숙 · 박영선 ·
박완주 · 박재호 · 박정 · 박주민 · 박준영 ·
박지원 · 박찬대 · 박홍근 · 백재현 · 백혜련 ·
서영교 · 서형수 · 설훈 · 소병훈 · 송영길 ·
송옥주 · 신경민 · 신창현 · 심재권 · 안규백 ·
안민석 · 안호영 · 양승조 · 오영훈 · 오제세 ·
우상호 · 우원식 · 원혜영 · 위성곤 · 유성엽 ·
유승희 · 유은혜 · 윤관석 · 윤소하 · 윤종오 ·
윤후덕 · 이개호 · 이동섭 · 이석현 · 이언주 ·
이용득 · 이용주 · 이원욱 · 이인영 · 이재정 ·
이찬열 · 이철희 · 이춘석 · 이학영 · 인재근 ·
임종성 · 장병완 · 전재수 · 전혜숙 · 정동영 ·

정성호 · 정춘숙 · 제윤경 · 조정식 · 주승용 ·
진선미 · 최도자 · 최인호 · 추혜선 · 표창원 ·
한정애 · 홍영표 · 홍익표 · 황주홍 · 황희 의원
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1. 홍익표 · 안규백 · 황희 · 박주선 ·
김경수 · 진선미 · 송옥주 · 이원욱 · 기동민 ·
박재호 의원 발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홍익표 · 기동민 · 김경수 · 박재호 ·
박주선 · 송옥주 · 안규백 · 이원욱 · 진선미 ·
황희 의원 발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전혜숙 · 안규백 · 김동철 · 윤관석 ·
박주민 · 이개호 · 안민석 · 박광온 · 권미혁 ·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1. 정부 제출)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박범계 · 조승래 · 윤후덕 · 박영선 ·
윤관석 · 강훈식 · 송기현 · 김경협 · 백혜련 ·
신경민 · 이춘석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1. 박범계 · 조승래 · 윤후덕 · 박영선 ·
윤관석 · 강훈식 · 송기현 · 백혜련 · 이춘석 ·
신경민 의원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1. 박범계 · 조승래 · 윤후덕 · 박영선 ·
윤관석 · 강훈식 · 송기현 · 김경협 · 백혜련 ·
신경민 · 이춘석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변재일 · 이종배 · 양승조 · 유승민 ·
민홍철 · 최도자 · 강훈식 · 조승래 · 도종환 ·
박주선 의원 발의)

이상 4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휴회의 건

(2016. 6. 22. 의장 제의)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10일간)

○서면질문서 제출

자료요구 거부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관한 질문서

(2016. 6. 21. 박주민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15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위 건에 대한 보고서가 아래와 같이 각각 제출
되었음

2016. 6. 21. 농림축산식품부

2016. 6. 21. 국토교통부

2016. 6. 21. 경찰청

이상 3건 소관위원회에 송부하겠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